

중·근세 한일관계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손 승 철

I. 머리말	2) 일본개설서
II. 주제별 서술경향	5. 通信使
1.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元寇)	1) 한국개설서
1) 한국개설서	2) 일본개설서
2) 일본개설서	III. 공통점과 차이점
2. 倭寇	IV. 차이점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
1) 한국개설서	1. 왜구의 발생원인과 왜구집단의 구성
2) 일본개설서	2. 조선국호의 표기문제
3. 조선전기 통교관계	3. 조·일 통교의 성격
1) 한국개설서	4. 대마도정벌 및 삼포왜란
2) 일본개설서	5. 위사문제
4. 豊臣秀吉의 朝鮮侵略	V. 맺음말
1) 한국개설서	【토론녹취문】

I. 머리말

이 글은 현재, 한일양국에서 일반인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읽혀지고 있는 한국사 또는 일본사 개설서에 중·근세 한일관계사 부분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작업은 중·근세 한일관계사 기술에 있어서, 현재 양국간에 학술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쟁점이 무엇이며, 그 쟁점 중 어떠한 내용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상호간에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비교대상 서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韓國史新論》(一朝閣, 1999 新修重中本), 《

韓國通史》(乙酉文化社史 2003 改訂版 18刷),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창작과 비평사, 1999 초판3쇄),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2001년 초판12쇄)를 대상으로 했고, 일본의 경우는 《詳説日本史研究》(山川出版社, 1998, 2003,7刷), 《概論日本歴史》(吉川弘文館, 2001, 2刷), 《教養の日本史》(東京大學出版會, 2003, 2版8刷), 《Story 日本の歴史》(2002년 第1版 第2刷)를 대상으로 했다.¹⁾

중·근세란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개항전)까지이며, 일본의 경우는 平安時代 中期 이후부터 徳川幕府 末期까지로 대략 10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²⁾

양국의 개설서에서 중·근세 한일관계사분야에서 주로 다룬 주제는, 한국의 경우는 麗·蒙軍의 日本侵略, 倭寇, 조선초기의 對馬島征伐, 三浦倭亂, 壬辰倭亂, 通信使 등이며, 일본의 경우는 元寇, 倭寇, 朝鮮과의 通交, 豊臣秀吉의 朝鮮侵略, 通信使, 四つの口 등 양국이 거의 비슷한 주제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은 현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분과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僞使·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通信使]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역사교과서기술을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상호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에 一助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주제별 서술경향

1.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元寇)

1) 한국개설서

한국개설서의 경우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은 《韓國通史》와 《다시찾는 우리역사》에 기술되어 있다. 《韓國通史》에는³⁾,

-
- 1) 이들 서적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필자가 몇차례 양국의 유명한 대형서점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책들이며, 양국학자의 자문을 얻어 선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개설서로 선정한 《詳説日本史研究》와 《Story 日本の歴史》가 각기 고등학생을 위한 수험참고서이고, 학술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토론 녹취문 참고)
 - 2) 중근세의 시기구분은 편의상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분과에서 다루는 시기로 했다.

몽고 간섭기에 고려 국민이 입은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은 두 차례에 걸친 몽고군의 일본 침략 전쟁이었다. 몽고는 일찍부터 일본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를 위하여 일본 정벌을 계획하여 왔다. 고려가 몽고에 굴복하게 되자 몽고는 고려를 통하여 일본에 조공을 재촉하였다. 고려는 중간에서 두 나라를 조정하여 일본에 대해서는 通好를 권하고 몽고에 대해서는 海路 원정의 위험을 말하였다. 고려로서는 戰費 부담이 돌아오게 될 전쟁의 발발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고와 일본의 고집은 끝내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

…… 두 차례에 걸친 몽고의 일본 원정으로 고려인이 입은 인명·물자의 손실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라고 서술하여, 여몽연합군의 일본침략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침략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몽고의 일본에 대한 조공요청과 고려의 조정, 일본의 거절로 기술하고 있으며, 원정실패에 의한 고려의 손실을 강조하였다.

한편 《다시찾는 우리역사》에는⁴⁾,

원과 강화를 맺은 원종(원종, 1259~1274)과 그 다음 충렬왕(충렬왕, 1274~1308)시대에는 원의 일본침략 시도 때문에 고려가 병선(兵船)과 군대를 대느라 많은 고통을 받고 내정의 간섭도 많이 받았으나(주)…….

라고 하여, 일본침략시도 때문에 고려가 고통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았다.

元은 日本을 정복하기 위해 征東行省이라는 기구를 두고 고려 내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艦船과 군인 그리고 군량미를 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274년(충렬왕 즉위)과 1281년(충렬왕 7) 두차례에 걸쳐 元과 함께 일본원정에 나섰으나 일본 가마쿠라 바쿠후[鎌倉幕府]의 저항과 태풍, 그리고 고려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즉 여몽연합군은 일본의 저항과 태풍, 그리고 고려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실패했다고 기술했다.

2) 일본개설서

元寇에 관해서는 네권의 개설서중 2권만 기술하였다. 《詳說日本史研究》에는⁵⁾,

3) 韓祐勳, 《韓國通史》(乙酉文化社史 2003 改訂版 18刷), 175쪽.

4)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2001, 초판 12쇄본), 205쪽.

5) 五味文彦・高埜利彦・鳥海靖 編 《詳說日本史研究》(山川出版社, 1998, 2003, 7刷), 147쪽.

1268(문영5)년, 쿠빌라이는 고려를 중개로 국서를 일본에 보내어 조공을 구하여 왔다. 막부는 返書を 보내기로 결정하고, 西國의 수호들에게 [몽고의 흥심에 주의]하도록 지령했다. 北條宗家の 時宗(1251-84)이 北條政村(1205-73) 등에 의지하여 18세의 젊은 나이로 집권의 자리에 있으면서, 원에 대응을 지휘하게 되었다. ……

1274(문영11)년 10월, 원은 忻都(생몰년불상)·洪茶丘(1244-91)을 장수로 하여, 元兵 2만과 고려병 1만을 병선 900척에 태워 조선남단의 合浦(馬山浦)에서 출발시켰다. 원군은 대마에 상륙하여 守護代인 宗資國(?-1274)을 패사시키고, 壹岐·松浦를 습격하고, 博多灣에 침입했다. ……원군은 해가 지면서 배로 돌아갔는데, 그날밤 폭풍우가 일어나 많은 병선이 침몰했다. 큰피해를 보았던 원군은 함포로 퇴각했다. 이 사건을 文永의 役이라고 부른다. ……1279(홍안 2)년에 남송을 무너뜨린 쿠빌라이는 1281(홍안 4)년에 두 번째의 일본 원정군을 보냈다. ……이 사건을 弘安의 役이라고 하며, 文永의 역과 합쳐, 두 번에 걸친 원의 래습을 元寇라고 부른다.

라고 하여, 元寇의 침입과정과 그에 대한 응전상황을 소상히 기술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고려나 일본의 피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Story 日本の歴史》에서는⁶⁾,

13세기 들어와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1231년이래 거듭해서 고려를 공격했다. 고려 측은 격렬하게 반격했는데 1359년에는 복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몽골이 중국을 지배하여 성립된 원은 일본으로의 침략을 시도하고 있다.(元寇 1274~1281) 이것의 협력을 강요받은 고려국내의 반몽골 활동은 원이 일본으로 침략하는 것을 늦추게 했다.

라고 하여, 두차례의 침략사실과 고려 국내의 반몽골활동을 서술하였다.

2. 倭寇

1) 한국개설서

《韓國史新論》에는⁷⁾,

일본의 해적인 왜구의 침입이 시작된 것은 이미 고종(1213~1259) 때부터였으나, 심하

6) 日本史教育研究會, 《Story 日本の歴史》 古代・中世・近世史編, (2002년 第1版 第2刷), 133쪽.

7) 李基白, 《韓國史新論》(一朝閣, 1999 新修重中本), 221쪽.

게 창궐하게 된 것은 충정왕 2년(1350) 이후였다. 왜구는 간단한 무장 밖에 갖고 있지를 않았으나, 배를 타고 다니며 각지의 해안에 상륙하여 촌락을 습격하였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내륙으로 이주하여 해안지대의 기름진 농토는 황폐하여 갔다. 왜구는 또 開京 바로 앞인 江華島에까지 습격하여 왔고, 이 때문에 개경이 소란하게 되었다. ……

왜구를 막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외교적 교섭이 일본과 행하여졌으나 효과가 없었다. 일본정부 자체가 그를 억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崔瑩·李成桂·鄭地 등 여러 장군의 활동은 왜구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 崔茂宣이 화통도감에서 만든 각종 火炮로써 왜구의 배를 무찔러 공을 세웠다. 특히 朴葦가 그 소굴인 對馬島를 직접 정벌한 창왕 원년(1389)이후 왜구는 그 세가 크게 꺾이었다. 이 왜구의 격퇴과정에서 최영·이성계 등 武將의 세력이 등장하였다.

라고 하여, 왜구가 조선을 습격하는 상황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최영·이성계 등이 왜구의 격퇴과정을 통하여 무장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기술했다. 그러나 왜구침략의 시점과 왜구의 규모에 관해서는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에서는⁸⁾,

우왕대 초의 최대 현안은 14세기에 들어와 급격히 창궐하게 된 왜구(倭寇)를 퇴치하는 것이었다. 왜구는 도처에서 잔혹하게 노략질을 하여 세곡(稅穀) 수송망인 조운(漕運)까지 마비시킬 정도였다. 고려조정은 일본 바꾸후(幕府)에 왜구의 노략질을 근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내란에 처한 바꾸후가 지방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 성과가 없었다.

라고 하여, 왜구의 창궐과 피해, 고려의 외교적 노력과 토벌등에 관해 기술하였다. 한편 《다시찾는 우리역사》에는 고려말 신흥사대부의 문화를 기술하는 가운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설명하면서 왜구를 기술하였다.⁹⁾

공민왕이 즉위 전후한 시기부터 상업자본의 발달에 따라 몰락한 일본 하층무사들이 수십척 혹은 수백척의 배를 몰고 들어와 중부 이남의 연해안 지방을 약탈하고 조세 운반선을 습격하여 큰 피해를 주기 시작하였다. 이들을 왜구(倭寇)라고 불렀다. ……

또한 1389년(창왕 1년) 경상도 도원수 박위(朴葦)는 100척의 함대를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공격하여 300척의 적선을 불사르는 큰 전과를 거두었는데, 이로부터 왜구의 창궐은 크게 약화되었다.

8) 한영우·권태익·서중석·노태돈·노명호,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창작과 비평사, 1999 초판3쇄), 163쪽.

9) 앞의 《다시찾는 우리역사》, 209쪽.

그런데 이 책에서는 왜구를 시기적으로 공민왕의 즉위 전후부터 상업자본의 발달에 따라 몰락한 일본의 하층무사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韓國通史》에서는¹⁰⁾,

그는 당시에 더욱 극성스러워지는 왜구를 방어·격퇴함으로써 그의 武名을 더욱 떨치게 되었다. 그는 東北面元帥로서 강릉·덕원 등지로 침구해 오는 왜구를 물리치고, 공민왕 21년(1372) 西江副元帥로서 강화를 침입하여 개경을 위협하는 왜구를 물리치고(禡王 3년, 1377), 같은 해에 다시 지리산으로 침구한 왜적을 대파하였다. 그 3년 뒤인 禡王 6년에는 尙州·善州 등지로 침입한 왜적을 雲峰에서 대파하여 이성계의 武名은 이제 전국적으로 떨쳐지게 되었다.

고 하여, 이성계의 武名이 왜구진압을 통하여 널리 알려짐을 기술했다.

이와 같이 한국개설서의 왜구에 대한 기술은 주로 왜구의 침탈내용이나 이에 대한 응징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영이나 이성계 등 무장세력의 성장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2) 일본개설서

왜구에 관해서 《詳說日本史研究》에서는¹¹⁾,

이무렵 왜구라고 불리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해적 집단이 맹성을 떨치고 있었다. 왜구의 중요한 근거지는 對馬·壹岐·肥前の 松浦 지방 등으로 규모는 2~3척의 선박으로부터 수백 척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 가지였다. 왜구는 조선반도, 중국연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포로로 하며 약탈을 행했다. 곤란을 받고 있던 고려는 일본에 사자를 보내 왜구의 금지를 요구했는데 당시 구주지방은 전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금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14세기 왜구를 전기왜구라고 부르는데 그 주요한 침략의 대상은 조선반도로서 기록에 명시하고 있는 것만도 400건에 이르는 습격이 있었다. 고려가 쇠망한 하나의 원인은 왜구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라고 하여, 전기왜구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해적집단으로 서술했고, 그 중요한 근거지는 對馬·壹岐·肥前 松浦 지방 등으로 규모는 2~3척의 선박으로부터 수백 척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 가지였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조선반도를 400건이상 습격했

10) 앞의 《韓國通史》, 191쪽.

11) 앞의 《詳說日本史研究》, 179쪽.

고, 그것이 고려 쇄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概論 日本歴史》에서는¹²⁾,

왜구란 중국의 해금정책에서 형성된 동아시아의 私貿易, 海賊集團으로 민족, 국경을 초월하여 연합하고 있었다. 14세기 후반이래 이들 집단이 사람과 물건과 기술의 교류의 주역이 되어갔다. 1350년 이후 조선반도에서 활발화 한 왜구는 對馬・壹岐나 北部九州를 거점으로 한 日本人이나 朝鮮人을 주력으로 했다. 그 후 15세기 초에 걸쳐서 조선반도, 산둥반도 등을 중심으로 사무역이나 약탈행위들을 행하고 있었다.(前期 倭寇)

라고 하여, 왜구를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연합한 세력으로 보고, 1350년이후 조선반도에서 활발화 한 왜구는 對馬・壹岐・北九州를 거점으로 한 일본인이나 조선인을 주력으로 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Story 日本の歴史》에서는¹³⁾,

왜구는 동아시아 삼국의 영역을 활동영역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와는 다르게 이 당시는 국가의식이나 민족의식은 강하지 않았고 해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 민족이 잡거하는 이 지역에서 국적이나 민족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현재의 국적에서 보면 왜구는 일본인이나 조선인 혹은 그 혼혈 등을 중심으로 한 잡거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구의 활동은 고려멸망의 원인이 되었다(130쪽).

라고 하여, 왜구는 해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민족이 잡거하는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현재의 국적에서 보면 일본인이나 조선인 혹은 그 혼혈을 중심으로 한 잡거집단이라고 서술했다.

3. 조선전기 통교관계

1) 한국개설서

《韓國史新論》에서는 對外政策에서 조선전기 한일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¹⁴⁾

12) 佐々木潤之介・佐藤信・中島三千男・藤田覺・外園豊基・渡辺隆喜…編, 《概論日本歴史》(吉川弘文館, 2001, 2刷), 79쪽.

13) 앞의 《Story 日本の歴史》, 130쪽.

조선 초기에도 그들의 약탈행위는 가끔 일어났다. 산악이 많아 자신의 농산물만으로는 식생활을 충족시킬 수 없는 대마도의 왜인은 조선이 교역을 거절할 때 해적과 같은 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世宗이 이종무로 하여금 對馬島를 정벌케 한 것은 이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하려고 한 것이었다(세종 원년, 1419).

조선의 왜에 대한 강경정책의 결과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倭人이었다. 이에 대마도의 宗氏는 누차 사신을 보내어 사죄의 뜻을 표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제한된 교역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乃而浦(熊川)·富山浦(東萊)·鹽浦(蔚山) 등 3浦를 열어 무역할 것을 허락하고, 3포에는 倭館을 두어 교역에 편케 하였다. 그 결과 倭船이 3浦에 빈번히 내왕하면서 많은 미곡과 면포를 수출해 갔다. 이에 이를 제한하려고 한 것이 세종 25년(1443)의 癸亥約條였다.……그후 중종 5년(1510)에 3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鐵將과의 충돌로 난을 일으켜 소란을 피웠다. 난이 진정된 후 3포를 폐쇄하고 교역을 끊었으나, 대마도주의 애걸로 다시 중종 7년(1512)에 壬申約條를 맺고, 계해약조에 규정된 세건선과 세사미두를 반으로 감하여 각기 25척·100섬으로 제한하고 교역을 허락하였다.

당시 일본이 필요로 하여 가져가는 물건은 미곡·면포·마포·저포 등의 생활필수품과 나전·도자기·화문석 등의 공예품, 그리고 대장경·유교서적·범종·불상 등의 문화재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문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그들이 가져오는 물건은 銅·錫·硫黃 등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광산물과 약재·향료 등 양반들의 사치품이었다.

즉 대마도의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왜구의 지속적인 출현, 왜구근절을 위한 대마도정벌, 그후 대마도에서 사죄의 사절을 보내어 제한된 교역을 허락하고, 삼포를 개항했으며, 계해약조를 맺은 사실을 기술했다. 이어 삼포왜란과 교역의 단절, 그러나 대마도주의 애걸로 임신약조를 맺어 교역이 재개되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당시의 교역품에 관해 소개했다.

한편 《韓國通史》에서는 왜구의 근절과 납치된 포로의 송환, 대마도주에 대한 왜구근절의 책임 및 무역통제권 부여, 회유책(授職人制度), 대마도정벌, 삼포개항, 계해약조, 대장경청구, 밀무역, 삼포왜란, 임신약조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세종 25년(1443)에는 對馬島主와 조약을 맺어 그의 歲遣船을 年 50척으로, 歲賜米를 米豆 200섬으로 제한하였다. 특별한 경우에는 特送船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따로 약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대로의 세건선을 보내 올 수도 있게 하였다. 이로써 대마도주 이외에도 일본국왕(足利將軍)이나 대소의 호족들의 使送船이 내왕할 여지를 주었다. 이 조약

14) 앞의 《韓國史新論》, 259쪽.

을 癸亥約條라고 한다.

라고 하여 계해약조의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있다¹⁵⁾. 계해약조의 내용에는 足利將軍이나 大小豪族들에 관한 세건선 약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海東諸國記》에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히 倭使의 거의 모두가 大藏經이나 梵鐘 등을 회구하여 와서 이를 사여한 일도 적지 않았으며, 寺塔의 영조·수리나 佛事의 募財를 위하여 사신을 파견해 오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문화재의 賜與는 일본의 문화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고 하여, 대장경이나 불구의 구청 사실을 기술하면서, 조선문화재의 賜與가 일본문화발전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했다¹⁶⁾.

또한 [유구·남만과의 교섭]에서는,¹⁷⁾

……조선초기에 들어서면서 조선과 琉球의 교섭은 더욱 빈번해졌다. 유구의 추장도 일본처럼 해마다 세건선을 조선에 보내왔고 조선은 유구인에게 관직을 주어 우대한 일도 있었다. 한편 조선의 선박이 유구에 표착하는 일도 많았다. 그들 중에는 다시 조선에 송환되는 자도 있었으나 그대로 유구에 머물러 남방무역에 종사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라고 하여 유구와의 교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유구국왕을 추장이라고 표기한 것이나, 조선인이 유구에 표착하여 유구에 머물면서 남방무역에 종사하였다는 기술은 좀더 고증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조선초기 대외관계의 결론으로¹⁸⁾,

조선초기 대외관계는 명에 대한 事大 관계와 여타 諸族에 대한 교린관계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반면에 여타 제족에 대해서는 授職·회유하는 정책이기도 했다. 이와같은 의례적인 관계와는 달리, 실제적인 이해관계는 “朝貢”무역에 있었으며, 그것은 관무역을 위주로 하여 약간의 사무역이 수반되는 정도였다.

고 하여 事大와 交隣關係속에서 조선의 대일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15) 앞의 《韓國通史》, 228쪽.

16) 위의 책, 229쪽.

17) 같은 책, 229쪽.

18) 앞의 책, 230쪽.

러나 조일무역의 성격을 완전히 조공무역이라고 단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며, 사무역의 규모도 상당한 만큼 약간의 사무역이라는 표현은 모호한 표현이다.

한편 《다시찾는 우리역사》에서는 [일본 및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의 항목을 설정하여 기술하였는데,¹⁹⁾

조선왕조의 영토확장정책은 남방으로도 미쳤다. 고려말 공민왕 이후로 식량과 문화재를 약탈하기 위해 들어오는 일본 하급무사들, 즉 왜구(倭寇) 때문에 해안지방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백성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다. 일본은 그만큼 식량부족이 심각하고 선진문명에 대한 욕구가 컸다.……

침략과 약탈이 어려워진 것을 알게 된 왜구와 그 배후 조종세력인 호족들은 평화적인 무역관계를 요구해 왔다. 조선은 일본과의 선린을 위해 이를 승인하고 부산과 창원[내이포]을 개항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다.

라고 하여,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왜구를 식량과 문화재를 약탈하기 위해 들어오는 일본 하급무사로 기술하였고, 조일 통교가 왜구와 그 배후 조종세력인 호족들의 평화적인 무역관계에 의해 포소를 개항하면서 이루어 졌다고 했다.

이어 대마도정벌과 계해약조, 교역품등을 소개했고, 왜인은 생활필수품과 고급문화재가 필요하였고, 우리는 무기원료나 기호품이 필요했다고 기술하면서,

한편, 일본의 무로마치[室町] 정부는 조선의 불교 《대장경》을 구하기 위해 사신을 보내 때를 쓰기도 하였다(1424, 세종 6). 조선은 여러 번의 《대장경》을 소유하여 한질을 건네주었는데, 이것이 일본의 불교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고 하여, 대장경의 사여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데, 대장경의 구청은 1424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대장경의 구청과 사여에 관해서는 좀더 개괄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즉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대장경 구청에 관한 기사는 1394년부터 1539년까지 정확히 판명되는 되는 것만도 청구횟수는 78회 이상이었고, 50질 이상의 대장경과 각종 불경이 사여되고 있다.

한편 유구 및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와의 교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²⁰⁾

조선과 문물을 교류한 나라는 여진, 일본 이외에도 유구(유구, 오키나와), 섬라[타이], 자바[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나라가 있었는데, 이들 나라는 조공 혹은 진상의 형

19) 앞의 《다시찾는 우리역사》, 230쪽.

20) 위의 《다시찾는 우리역사》, 232쪽.

식으로 각종 토산품 [주로 기호품]을 가져와서 의복, 포류(포류), 문방구 등을 회사품으로 가져갔다. 특히 유구와의 교역이 활발하여, 대장경을 비롯한 불경, 유교경전, 범종, 부처를 건네주어 그 나라의 불교발전에 기여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경복궁 대궐 앞은 일본 및 동남아시아사신들로 붐볐다고 한다. 조선은 명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화수출국의 위치에 있었다.

라고 기술하여,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서술하면서도 문화우위국의 입장을 주장했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전기 한일관계의 기술은 왜구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왜구를 통교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 대마도정벌, 삼포개항, 각종의 통교규정 및 약조, 삼포왜란, 교역품의 소개 등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곤궁한 왜구 내지는 왜인(일본)에 대해 규제를 해가면서 통교를 허락해주고, 대마도주를 내세워 통제해가며 경제적인 혜택을 주며, 문화적으로는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해 주어 일본문화발달에 기여했다는 경향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일본개설서

室町幕府시기의 조선과의 통교에 관해서, 《詳說日本史研究》에서는²¹⁾,

조선반도에서는 1392년 왜구를 격퇴해 명성을 얻은 무장 이성계가 고려를 쓰러뜨리고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도 명과 마찬가지로 통교와 왜구의 금지를 일본에 요구해왔다. 막부는 즉시 이것에 부응하여 일조관계를 시작했다. 1419(응영26)년 조선은 2백 척의 병선과 17,000명의 군병을 가지고 대마를 공격했다. 이것을 應永의 外寇라고 말하는데 조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왜구의 격멸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후에 계속 이어졌다.

라고 하여, 통교의 계기가 조선이나 명이 모두 일본에 통교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부가 이에 응하여 통교가 시작되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應永의 外寇가 왜구의 격멸에 목적이 있었다고 서술했다. 이어서 [조선과의 통교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했다. 이어 삼포의 난에 관해서는²²⁾,

삼포에 정주하는 일본인도 증가하여 15세기 말에는 3천명을 넘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21) 앞의 《詳說日本史研究》, 180쪽.

22) 위의 책, 181쪽.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는데, 1510(영정7)년 그 운용을 둘러싸고 폭동을 일으켜 조선의 역인에게 진압되었다. 이것을 삼포의 난이라고 부르며 무역은 이 뒤에 점차적으로 부진해져 갔다.

라고 하여, 3천명이 넘는 일본인이 특권을 무시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서술했다. 《概論日本歴史》에서도²³⁾,

[朝鮮과의 通交] 李氏朝鮮은 일본과의 통교를 위해 왜구의 취제를 구했다. 14세기 말에 그 취제를 일본에 요구했던 조선은 일본과의 통교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그들의 교역을 관리·통제하는 역할을 대마의 중씨에게 주었다. 1419(응영 29. 세종 원)년에 조선은 왜구의 근거지를 치려고 대마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응영의 外寇), 16세기 후반의 이르러 조선에의 통교권은 거의 宗氏에게 독점되어 졌다. 무역품으로써 일본으로부터 구리, 소목, 유황, 철기 등이 수출되었고, 조선으로부터 목면, 대장경, 불구 등이 수입되었다.

라고 서술하여, 조선에서 일본과의 통교를 위해 왜구의 취제를 구했다고 했다. 그리고 朝鮮을 지칭할 때 국호를 쓰지 않고 李氏朝鮮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李氏朝鮮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Story 日本の歴史》에서는 [日朝의 善隣時代]라는 소주제에서 양국의 통교관계를 서술했는데²⁴⁾,

이성계는 1392년 막부에 왜구의 금압을 요구하였으며 서일본의 諸大名에게도 같은 요청을 행했다. 남북조의 내란을 종식시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장군 足利義滿은 이것에 응했고 이후 일조정부의 금합과 회유정책에 의해 왜구는 급속하게 감소해갔다. 이 영향을 받아 일본 국왕(足利義滿)과 조선 국왕은 1404년 대등한 선린관계로써의 국교를 열게 되었다. 600여년만에 열린 정식의 국교이다. 또 양국은 명을 종주국으로 받들어 책봉을 받았으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안정되었다. 일조간의 교류는 일찍이 이러한 바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교의 계기는 조선의 왜구금압 요구에 부응한 將軍과 諸大名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1404년 일본국왕과 조선국왕은 대등한 선린관계를 맺어 600년만에 국교를 열었다는 점, 조일양국이 명으로부터의 책봉을 받은 것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안정을 의미한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양국관계를 서술했다.

23) 앞의 《概論日本歴史》, 78쪽.

24) 앞의 《Story 日本の歴史》, 134쪽.

또 [對馬와 三浦]라는 주제²⁵⁾,

무로마치막부는 도쿠가와막부의 이른바 쇄국과 같은 통제는 아직 없었으며 국가에 의해 통교를 단일화하지는 않았다.……중씨는 원래 왜구의 중심적 인물이었는데 조선으로부터 도항 증명서(文引) 발급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일조통교의 두목이 되었다. 더욱이 막부로부터 수호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조선으로부터도 세사품으로써 쌀과 잡곡을 매년 부여받고 있었다. 이전에 왜구·해적·상인이었던 유력자는 조선에 투항하여 형식상 국왕의 신하가 되었고 통교권을 부여받았다. 그 때문에 교역은 조선으로의 朝貢과 그것에 대한 回賜라는 형태가 되었으며 일본측에게는 매우 유리했다.

라고 하여, 일조통교에서의 宗氏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그 외의 유력자들은 조선에 투항하여 형식상 국왕의 신하가 되었고, 통교권을 받았으며, 그래서 교역은 조선으로의 朝貢과 回賜라는 형태가 되었지만 일본측에 매우 유리했다고 서술했다. 이 때문에 일조간의 통교는 특이한 형태를 취했고 국가 간의 사절교환 외에 細川氏와 大內氏 등의 有力守護大名, 對馬島主 宗氏, 이전의 倭寇와 海賊·海商들이 각자의 레벨에서 조선국과 관계를 맺었다고 서술했다.

이어 [은과 목면]을 소주제로 하여²⁶⁾,

일본으로부터는 동·유황·금 이외에 남해무역에서 얻어진 소목·후추 등, 조선으로부터는 목면이 교역품의 중심이었다. 동은 이듬해 1530대 이후로 은으로 바뀌었다. 石見에서 광산이 발견되어 조선으로부터 전해진 <灰吹き法>이라는 새로운 정련법으로 은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결과였다. 목면은 전부 대명에게 병사의 의료와 철포의 화승으로써, 또 범포(뚝에 쓰는 천)와 어망의 재료에도 필수품이었으나 국내 생산은 적었었다. 조선의 목면이 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문화면에서도 불교의 경전(고려판대장경, 현재 한국 경상남도 해인사에 그 판목이 남아있다)·불교·불상, 도자기 등이 수입되었다. 일조간의 교역은 양자의 이해관계로부터 때로는 긴장을 초래하였으며, 산포의 난(1510년 산포의 일본인이 조선 측의 규제강화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켜 이후 개항장은 부산만이 되었다.)과 같은 충돌도 발생하였고 또 다시 왜구의 활동도 있었기는 했지만 거의 무로마치시대를 통해서 계속되었다.

라고 하여, 교역품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은의 정련법이 조선으로부터 전래된 사실도 소상히 기술했다. 그러나 산포의 난을 설명하면서, 이 난의 원인 당초 조·일간에 항거왜인수의 약정이 있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음에

25) 위의 책, 134쪽.

26) 앞의 책, 135쪽.

도, 단순히 조선측의 규제강화만을 서술했다.

4. 豊臣秀吉의 朝鮮侵略

1) 한국개설서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에 대한 기술을 《韓國通史》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전쟁의 원인에 관해서²⁷⁾,

……일본 국내의 통일이 거의 성취되어 갈 무렵 豊臣秀吉이 對馬島主를 통해서 조선에 대하여 수교를 요청하는 한편, 명을 정벌하기 위해 그의 군대가 조선을 통과할 것을 요청해 오자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豊臣秀吉이 조선을 침공할 뜻을 품고 군사와 선박을 징발하여 준비하는 동안 조선 정부는 사신 두 명을 보내어 그 동정을 살펴 오게 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두 사람의 상반된 견해를 듣고, 내침할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좇아서 이에 대한 방비를 서두르지 않았다.

라고 하여, 豊臣秀吉의 조선수교요청과 명을 정벌하기 위해 조선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러나 豊臣秀吉이 조선과 수교를 원했다는 서술은 문제가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전쟁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전쟁의 진행과정에 대하여,²⁸⁾

1592년 봄에 豊臣秀吉은 15만 대군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東萊城을 공격케 하였다. 불의의 침공을 받은 東萊城의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조총과 弓矢와의 대전이어서 이를 막아 낼 수가 없었다. 동래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3路로 군사를 나누어 북상하였다.

라 했고, 이어 명의 참전과 의병의 쫓기, 화의 회담과 정유재란에 관해 기술하였다²⁹⁾.

……명은 조선의 청원에 따라 그 해 7월에 만주에 있던 군대를 파견하여 평양의 일본군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 해 정월에 明將 李如松이 이끄는 明軍이 평양의 일

27) 앞의 《韓國通史》, 283쪽.

28) 앞의 책, 284쪽.

29) 위의 책, 285쪽.

본군을 격퇴하고 남으로 추격하여 한양에 육박하던 중에 碧蹄館 전투에서 대패하여 평양으로 돌아갔으며 일본군은 서울에 머물었다. ……한편, 국내 각지에서는 異族 침구에 의분을 느낀 유생·승려가 꺾기하고 이에 따라서 각처에서 민중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대체로 명망이 높은 전직 관료나 유학자의 지휘를 받아 일본군을 공격하여 그 후방을 교란시키거나 그 점거지에서 몰아 내기도 하였다.

……明軍과 일본군 사이에는 대치 상태가 계속되다가 일본군은 명군의 和議에 의해 응해 서울에서 철수·남하하여 경상도 연안 지역 일대에 새로 성을 쌓고 그 곳에 주둔하였다. 회담이 완전히 결렬된 1597년에 豐臣秀吉은 다시 군대를 증파하여 조선에 대한 침공을 꾀했다.……전투는 거의 교착 상태에 빠져서 일진일퇴하는 동안 豐臣秀吉이 病死하게 되자 일본군 철수의 遺命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군은 조선 남부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이를 丁酉再亂이라 한다. 露梁 해상에서 일본군의 퇴로를 막아 섬멸하려던 이순신은 불행히도 流彈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이로써 豐臣秀吉의 교만과 탐욕에 의해서 도발된 7년에 걸친 전란이 끝났다.

이어 전쟁의 영향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³⁰⁾.

이 전란에 의해서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이었다. 일본군의 살육과 약탈에 의해서 많은 인명과 재화가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납치되어 가서 경작 노동에 강제 사역당하거나 노예로 매매되었다.…….

전란에 따르는 田野의 황폐는 그 후의 조선 사회에 가장 큰 피해를 끼쳤다. 그것은 광범위한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것이기도 했다. ……

이 밖에 문화적인 손실도 적지 않았다. 景福宮을 위시한 여러 궁전·관아가 손실되고 弘文館의 장서가 화진되었다. 조선 역대의 실록 등 귀중한 서적을 보관해 두었던 4개처의 史庫도 전주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실되었다. 또 서적·미술품 등 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거나 손상을 입었다.

일본의 불의의 침범과 그것이 가져온 막대한 피해로 말미암아 국민 사이에는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마음 속 깊이 맺히게 되었고, 그것은 오랜 후일까지 전승되었다.

라고 기술하여, 전쟁의 피해를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특히 전쟁으로 인한 조선인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오랜 후일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전쟁에 의해 단절되었던 양국관계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과 전쟁이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³¹⁾.

30) 위의 책, 286쪽.

31) 앞의 책, 287쪽.

德川家康이 다시 무인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 조선에 수교를 청하여 오자 조선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였다. 일본군이 강제로 납치해 간 자중에는 도자기 제조의 기술공이 있어서 그들에 의하여 그 뒤 일본의 도자기는 크게 발달하였으며, 그들이 가져간 조선의 활자가 일본 활자 기술의 발전을 보게 하였다. 전란 중에 약탈해 간 많은 서적은 주자학을 위시하여 일본인의 학문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하였다.

《韓國通史》 이외의 개설서에서도 임진왜란에 관해서는 모두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즉 임란의 원인, 경과, 조선의 저항, 명군의 파견, 화의교섭, 정유재란, 조선의 피해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은 《韓國史新論》에서는 임란의 원인에 대해³²⁾,

…전국시대라는 혼란기를 도요토미(豊臣秀吉)가 수습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통일에 성공한 그는 諸將의 힘을 해외로 방출시킴으로써 국내적인 통일과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넓어진 해외건문이 한 자극이 되어서 도요토미의 가슴속에는 대륙에 대한 침략적 야욕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279쪽)

라고 하여, 豊臣秀吉의 야욕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음을 서술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에서는³³⁾,

일본인들은 세종이후로 남해안의 세 항구[三浦]를 이용한 무역에만 의존하면서 조선의 쌀과 포목등을 얻어갔는데, 그 무역량이 제한 되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품어왔다. 중종때의 삼포왜란(三浦倭亂)과 명종(明宗)때의 을묘왜변(乙卯倭變)은 그런 이유로 일어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토요또미의 주장은 다이묘오의 동의를 쉽게 얻었다. 참전한 다이묘오들에게 조선땅을 주기로 한 시안을 만든 토요또미는 침략의 구실을 찾기 위해, 명나라를 치러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요구해왔다. 조선이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토요또미는 여러 다이묘오들을 동원하여 20만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이들을 1592년 4월 한반도 남쪽 부산포에 상륙시켰다.

라고 하여, 삼포왜란과 을묘왜변을 조선을 정벌하자는 豊臣秀吉의 주장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연스럽지 않다.

한편 《다시찾는 우리역사》에서는³⁴⁾,

32) 앞의 《한국사신론》, 279쪽.

33) 앞의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205쪽.

34) 앞의 《다시찾는 우리역사》, 311쪽.

…국내통일에 성공한 도요토미는 지방세력가인 다이묘[大名]들의 관심을 밖으로 분출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대륙과 한반도를 정복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지배자가 되려는 야욕을 품게 되었다.…

일본은 조선침략의 구실로 명을 치러가는데 필요한 길을 빌리자고 요청했다.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이다. 조선은 물론 이러한 제의를 거절했다.

1592년(선조 25) 4월에 약 20만명의 왜군이 부산을 침략하였다.

라고 하여, 침략의 원인을 大名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그 여세로 동아시아의 지배자가 되려는 야욕을 품었다고 했다. 그러나 침략군의 숫자를 다른 책과는 다르게 20만으로 서술했다.

또한 《다시찾는 우리역사》에서는 [정유재란과 조선의 승리]의 항목에서³⁵⁾,

전후 7년간에 걸친 조·일전쟁은 조선측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일본은 영토를 얻은 것도 없고, 조선의 항복을 받아내지도 못한 것이다. 전쟁의 초반에는 우리가 고전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잠재된 국방능력이 발휘되어 일본을 압도하게 된 것이다. 유교의 문치주의가 국방을 허술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나, 유교에 의해서 배양된 충의정신과 자존심이 나라를 지키는 정신적 원동력으로 나타난 까닭이었다.

라고 하여,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조·일 전쟁이라는 용어로 지칭했고, 이 전쟁을 조선의 승리로 규정하였으며, 조선인의 충의정신과 자존심이 나라를 지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에 대하여,³⁶⁾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은 조선측이었다. 전국 8도가 전장으로 화하여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기근과 질병으로 쓰러졌다. 토지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없어져 국가운영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 왜군의 방화와 약탈로 인한 문화적 손실이 매우 컸다. 불국사와 경복궁, 서적, 기타 주요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약탈당했다. 그리고 수만명이 포로로 잡혀가 나가사키[長崎]의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유럽등지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통하여 도쿠카와[徳川]시대의 일본문화가 성장하는 도약대가 마련되었다. 활자, 그림, 서적을 약탈하고, 유명한 선비들과 우수한 활자인쇄공들을 포로로 데려가 성리학을 비롯한 여러학문과 인쇄문화가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조선에서 데려간 이삼평(李參平), 심당길(沈當吉: 沈壽官의 조상) 등 도자기 기술자에 의하여 일본의 도

35) 앞의 《다시찾는 우리역사》, 315쪽.

36) 위의 《다시찾는 우리역사》, 316~317쪽.

자기 문화가 큰 발달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일본의 도조(陶祖)로 불린다.

라고 하여, 전쟁에 의한 피해를 소상히 서술했다. 그러나 수만명이 포로로 잡혀가 유럽등지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기술은 좀더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2) 일본개설서

조선침략에 관해서는 한국의 개설서와 마찬가지로 4권에서 모두 기술하였다.

《教養の日本史》에는 간략한 서술이지만,³⁷⁾

1592년(文祿元), 秀吉은 肥前 名護屋을 본진으로 하여, 15만여의 대군을 조선에 出兵시켰다(文祿の役). 出兵初期에는 한성(서울)을 함락시키고, 국토의 3분지 2를 점령했지만, 朝鮮義民軍의 저항과 명의 원군 때문에 戰局은 진전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화의교섭이 이루어지고, 秀吉의 군대는 철퇴하면서, 秀吉은 勘合貿易의 부활, 조선의 남쪽반의 할양을 요구했기 때문에 강화는 성립되지 않고, 1597년(慶長 2), 다시 14만여의 군대를 출병시켰다(慶長の役). 그러나 다음해에 秀吉의 죽음을 계기로 철병했다. 전후 7년에 걸친 침략 전쟁은 양국민중에게 다대한 손해를 끼쳤고, 豊臣정권의 붕괴원인의 하나가 되었다.³⁸⁾

라고 하여, 전쟁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侵略 대신에 出兵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어 北島万次씨의 저서를 참고문헌으로 소개했다.

《詳説日本史研究》에서도³⁹⁾,

1587(천정15)년 秀吉은 대마의 宗氏를 통해서 조선에 대해 입공과 명출병의 선도 등을 요구했다. 조선이 이것을 거부하자 秀吉은 出兵의 준비를 시작해 肥前의 名護屋에 본진을 구축하고 1592(문록원)년 15만여 명의 대군을 조선에 파병했다(문록의 역).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신병기인 첩포의 위력 등에 의해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성(현재 서울)을 함락시켰고, 나아가서 평양도 점령했다. 이 무렵 秀吉은 後陽成天皇을 북경으로 옮기고 豊臣秀次를 중국의 관백에 임명한다는 무모한 계획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민군)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 일본군은 보급로가 단절되어 점차 전국은 불리하게 되었다.

37) 竹内 誠・佐藤和彦・君島和彦・木村茂光 編, 《教養の日本史》(東京大學出版會, 2003, 2版8刷), 135쪽.

38) 朝鮮侵略의 경과에 대하여는, 北島万次 《朝鮮日記・高麗日記》(そして、1982)를 참조

39) 앞의 《詳説日本史研究》, 227쪽.

라고 하여, 전쟁의 원인이 조선의 入貢과 明出兵의 선도거부라고 했고, 침략대신에 派兵이란 용어를 썼으며, 天皇을 북경으로 옮기고, 豊臣秀次를 관백에 임명한다는 무모한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어 전쟁의 잔인성에 대해⁴⁰⁾,

이 싸움에서는 秀吉이 전공의 증거로서 목 대신에 코를 가져오도록 했기 때문에 병사만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코를 베게 되어 전후 조선에서는 코가 없는 사람들이 시가에 넘쳐나고 있었다고 한다. (주: 일본에 보내진 코의 일부는 京都 方廣寺의 한 구석에 매장되어 현재도 耳塚(실은, 鼻塚)이라는 이름으로 동지에 남아있다.

라고 하여, 일본군의 잔혹성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전쟁의 피해에 관해서는 “조선사람들을 전화에 빠뜨려 많은 피해를 입혔다”라고만 서술하고 있다.

한편 [일본군의 고전]이라는 참고항목 속에서⁴¹⁾,

또 경장의 역에서 가장 치열했다고 말해지는 울산성 농성에서는 기아 상태에 있던 성내에 물 상인과 쌀 상인이 나타나 한 잔의 물을 은 15匁, 5升의 쌀을 判金 10枚라는 어처구니없는 가격에 팔고 있었다고 한다. 秀吉의 조선침략은 조선인을 고통스럽게 한 일본군에게도 또한 地獄圖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라고 하여, 일본에게도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음을 상기시켜준다.

《概論 日本歴史》에서는⁴²⁾,

수도 한성(현 서울)을 함락시켰다는 보고에 秀吉은 아시아 정복의 대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명의 구원군을 받았던 조선의 의군과 민중의 저항은 전황을 역전시켰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선봉장 小西行長과 명장 沈惟敬과의 사이에 화의가 이루어졌고, 문록(1593)년 극심한 군량 결핍 속에서 휴전한 일본군은 퇴각했다.

라고 하여, 豊臣秀吉의 아시아 정복의 구상을 서술했고⁴³⁾,

두 번에 걸친 조선 출병은 조선의 커다란 피해를 입혔고 황폐화시켰다. 그것은 영토의

40) 위의 책, 228쪽.

41) 위의 책, 228쪽.

42) 앞의 《概論 日本歴史》, 118쪽.

43) 위의 책, 118쪽.

획득, 무역의 재개, 명에 대한 국가 주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길 정권의 내부 대립의 해결도 목표로 했다고 말해진다.

라고 하여, 전쟁의 목적이 영토의 획득, 무역의 재개, 명에 대한 국가주권의 확립에 있었다고 서술했다.

그 외 《Story 日本の歴史》에서는 [大陸征服의 野望]의 소항목에서,⁴⁴⁾

秀吉은 小田原의 北條氏를 제압하여 전국통일을 완료한 후에 조선에 입공과 명으로의 선도역을 조선국왕에 요구하여 그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조선 출병을 강행했다. 1592년 肥前 名護屋에 대성곽을 축성하여 본진으로 하고 주로 西日本の 大名에게 명하여 동원한 15만 8천명의 군세를 부산포로부터 순차적으로 침입시켰다. 秀吉의 구상은 일본·당(중국)·천축(일본)의 삼국을 정복하여 天皇을 北京으로 불러들여 國都로 하고 諸大名과 皇族에게 所領을 分與하여 秀吉 자신은 日中通商의 요지가 되는 항만도시·寧波의 거소를 정해 삼국을 호령한다라는 과대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상이었다.

라고 하여, 전쟁의 이유로 조선의 入貢과 명으로의 선도역의 거절, 그리고 豊臣秀吉의 과대망상적인 구상을 들었고, 조선민중에 대한 고통으로⁴⁵⁾,

제2차 조선 출병에서 수길은 “모든 조선인을 죽여 조선을 공지로 만들어라. 목 대신에 귀와 코를 잘라내어 진공의 증거품으로써 일본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잘려진 조선 민중의 코는 소금에 절여져 항아리에 싸여 “하나우께도리초(鼻受取狀)”가 발행되었다. 그 수는 10만개라고도 말하여진다.

라고 하여, 일본군이 잔인성을 기술했다.

이어 조선이 받은 피해와 5-6만에 달하는 조선피로인들이 일본유학과 도자기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언급하였다.⁴⁶⁾

조선이 받은 피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再出兵 당시 일본군은 특히 잔혹하여 병사가 아니라도 무차별적인 살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諸大名은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에 보내 은상의 증거로 삼았다. 논밭은 황폐해졌고, 전쟁 이전에 조선국이 파악하고 있던 약 100만결(1결은 비옥한 토지로 약 1헥타르)의 경지는 전후에 약 30만결로 감소했다. 일본에 연행된 사람들은 5만명에서 6만명에 이른다고 말해진다. 그 중에는 姜沆

44) 앞의 《Story 日本の歴史》, 166쪽.

45) 위의 책, 167쪽.

46) 위의 책, 192쪽.

과 같은 뛰어난 지식인도 있었다. 그는 조선 주자학의 대성자인 李退溪의 제자로 저명한 유학자인데, 京都에서 유배중에 藤原惺窩와 교우를 맺어 일본의 유학에 영향을 주었다. 또 많은 도공들이 연행되어 왔다. 도자기 생산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중요한 산업인데, 조선은 고려시대부터 뛰어난 자기의 산지로서 유명했다. …… 이후 일본은 도자기의 산지로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반대로 조선의 도자기 산업은 쇠퇴했다. 文祿・慶長の 役을 “도자기 전쟁(茶碗戰爭)” 등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5. 通信使

1) 한국개설서

통신사에 관하여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에는⁴⁷⁾,

조·일 간의 국교가 재개된 것은 왜란이 끝 난지 9년 뒤인 1607년(선조 40)으로서, 조선은 토꾸가와 바꾸후(幕府)의 간청을 받아들여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하였다. 일본은 한주(州)의 1년 경비를 쏟아 조선의 통신사를 환영하였으며, 전국이 흥분 속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이루었다. 바꾸후 쇼오군(將軍)의 승습(承襲)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고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일본측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본 사신은 서울 입경이 불허되어 동래(東萊)의 왜관에서 실무적인 일을 보고 돌아가야 하였다.

조선이 일본에 1811년까지 12차례 걸쳐 통신사를 파견하는 등 양국은 평화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외교·문화적으로 조선이 우위를 지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술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이 막부의 간청을 받아들여 통신사를 파견했다고 하는 일방적인 우위의 입장이나, 당시 일본은 幕藩體制였으므로 州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승습축하는 타당하지만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다면, 외교·문화적으로 조선이 우위를 지켰다는 서술은 재고해야 한다.

한편 《다시찾는 우리역사》에는 4쪽에 걸쳐서 통신사의 에도성입성 그림이나 통신사의 전체 노정이 지도로 소개될 정도로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먼저 통신사의 파견과정을 보면⁴⁸⁾,

47) 앞의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207~208쪽.

48) 앞의 《다시찾는 우리역사》, 317~318쪽.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를 끊었으나, 도요토미를 대신하여 들어선 도쿠카와[徳川]막부는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간청해 왔다. ……

그러나, 조·일국교는 조선이 한단계 높은 위치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사신[差倭]의 서울 입경은 허락하지 않고 동래의 왜관에서 실무를 보고 돌아가게 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예조참판이나 참의에게 일본국왕의 친서를 보내와 사신파견을 요청해 오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60여차에 걸쳐 차왜를 보냈으나, 조선은 1607년부터 1811년에 이르기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를 파견하여 약 250년간 평화관계를 지속했다. 통신사의 정사(正使)는 보통 참의급에서 선발되었으나 일본에 가서는 수상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

라고 하여, 조선후기 국교재개가 도쿠카와막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조선이 한단계 높은 위치에서 진행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통신사가 일본에 가면 수상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고 기술했는데, 수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애매한 표현이다. 그리고 통신사의 영향에 대해서는⁴⁹⁾,

일본은 전국민적인 축제분위기 속에서 통신사를 맞이하고, 성대한 향응을 베풀었으며, 통신사의 숙소에는 수행원으로부터 글이나 글씨를 받기위해 몰려든 군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통신사가 한번 다녀오면 일본내에 조선 붐이 일고, 일본의 유행이 비뿔 정도로 일본문화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고 하여, 통신사가 일본문화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기술했다. 나아가 통신사 단절의 원인을,

일본에서 18세기 후반이후 일본의 국수주의 정신을 양양하기 위해 《일본서기》(日本書紀)를 새로이 연구하는 국학(國學)운동이 일어난 것은 일본 지식인의 조선붐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일본은 19세기에 들어와 반한적인 국학운동이 한층 발전하여 1811년(순조 11)의 통신사는 대마도에서 일을 보고 돌아가게 하였으며, 일본 국민들이 통신사와 접촉하는 것을 막았다. 그리하여 이 해를 마지막으로 다정했던 조·일 국교와 문화교류는 막을 내렸다.

라고 하여, 18세기 후반이후 일본의 국학운동은 일본지식인의 조선붐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고, 그것이 19세기에 들어와 1811년 통신사단절의 원인이 되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는,

49) 위의 《다시찾는 우리역사》, 319쪽.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는 일본에서 겪은 견문을 기록하여 많은 견문록이 전하고 있다. 이들 견문록은 일본이 문화는 낮으나 군사강국이라는 것과 재침략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 조선 지식인들의 대일 경각심을 높여 주었다. 조선후기의 해방론(海防論)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를 비롯한 역사책이 들어와 이를 고대사연구에 참고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치윤의 《해동역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고 하여, 통신사를 통한 일본인식이나 일본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과까지 소개했다.

2) 일본개설서

통신사에 관해서는 한국개설서와는 다르게 모든 개설서에 전부 서술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敎養の日本史》에서는⁵⁰⁾,

근세의 대외관계에 관해서 보면, 우선 조선과의 通交는 文祿・慶長の 役후에 단절되었었지만, 徳川家康과 對馬 宗氏등의 노력에 의해서, 1607년(경장12)에 처음 朝鮮國使節을 계기로, 1609년에 대마와 조선의 교통의 복구를 뜻하는 <己酉約條>(주1)가 체결되었다.

그후 36년(관영13)에는 통신사가 래일했다. 근세의 통신사(주2)는 그이전의 3회의 통신사를 포함하여, 장군이 바뀔 때나 그의 경사의 때에 1811년(문화8)까지 12회에 걸쳐 래일했다. 당시 조선은 명의 책봉을 받고 있었지만, 막부는 조선을 朝貢國처럼 취급했다.

라고 하여, 통교회복이 徳川家康과 對馬 宗氏の 노력에 의해서 부활된 것으로 서술했고, 막부는 조선을 朝貢國으로 간주했다고 서술되었다. 항간에 쟁점화 되어 있는 서술이다.

이에 반해 《詳説日本史研究》에서는⁵¹⁾,

조선으로부터는 사절이 전후 12회 내일했다. 1회째인 1607(경장12)년부터 3회째인 1624(관영원)년까지는 회답겸쇄환사로 불렸으며, 4회째인 1636(관영13)년부터 12회째인 1811(문화8)년까지가 통신사라고 불려졌다. 회답겸쇄환사라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국서에 대해 조선국왕이 회답한다는 명목이었으며, 쇄환사라는 것은 문록・경장의 역에서 일

50) 앞의 《敎養の日本史》, 153쪽.

51) 앞의 《詳説日本史研究》, 247쪽.

본으로 연행된 조선인 포로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그러나 4회째 이후는 지금까지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신의를 통한다는 의미의 통신을 사절의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라고 하여, 회답겸쇄환사는 국서에 대한 회답과 피로인의 쇄환, 그리고 통신사는 신의를 통한다는 의미의 사절이라고 소상하게 서술하였다. 그리고는⁵²⁾,

일본·조선양국의 친선관계를 상징하는 조선 사절의 人數는 국서를 가진 정사와 부사 이외에 평균 440명을 넘었는데, 이 일행은 각지에서 국가의 빈객으로서 정중하게 취급받았다. 그 경비는 오란다 상관장의 말과는 달리, 연도에 있는 大名 등의 부담과 지역사람들의 國役부담으로 조달되었다. 그 때문에 天明의 기근 후에 통신사의 초대는 연기되었고 1811(문화8)년의 12회째는 江戸가 아니라 對馬에서 맞이하는 형태가 취해졌다.

라고 하여, 앞의 《教養の日本史》와는 달리 일행이 각지에서 국가의 빈객으로 정중히 취급받았다고 서술하였다. 아주 대조적인 서술이다.

《概論 日本歴史》에서는 간단히 통신사의 래빙만을 간단히 소개하였으나, 《Story 日本の歴史》에서는⁵³⁾,

이른바 쇄국하의 해외정보에 빈곤해 있던 일본인에게 중국과 교통하여 그 정보와 문화를 가지고, 또 유학의 선진국이기도 했던 조선의 사절과 접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막부의 당국자들 외에 제대명, 무사, 도시 사람(초우닌, 町人)과 농민에 이르기까지 일행에게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사절이 숙박하는 객관에는 면접을 요구한 사람들이 모여 시문을 교환하거나 한문에 의한 필담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조선측도 이것을 의식하여 사절에는 일류의 문인을 배치하여 일본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다.

라고 하여, 통신사는 해외정보에 빈곤해 있던 일본인에게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학의 선진국이었던 조선사절을 접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통신사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하여⁵⁴⁾,

통신사는 근세 일조간의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썩은 상대에 대한 蔑視觀, 자국을 우위로 보는 中華意識을 강하게 계속 가지고 있었다. 사절단의 수가 점점 늘어나 응접에 사치를 다했던 것은 그러한 의식의 반영이기도 했었

52) 앞의 책, 248쪽.

53) 앞의 Story 《日本の歴史》, 194쪽.

54) 위의 책, 196쪽.

다. 특히 일본에서는 江戸시대 말에 서구제국의 압력이 늘어나게 되어 위기의식과 함께 자국을 神國視 하는 경향도 나타났고 그것은 주변제국에 대한 멸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통신사의 단절에는 이러한 사정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무렵 국내에는 조선과 주변제국으로의 侵略論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명치초년의 征韓論에 연결되어갔다.

라고 하여, 통신사의 역사적의미가 豊臣秀吉의 조선침략후 단절되었던 양국간의 평화로운 시대의 상징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멸시관과 자국을 우위로 보는 중화의식에 의해 明治初年の 征韓論이 생겨나고 양국관계가 다시 불행해 진다고 했다.

한편 양국의 개설서 가운데 유일하게 《Story 日本の歴史》에서 조일무역의 형태와 倭館을 서술했는데⁵⁵⁾,

...무역은 대마의 배가 조선에 가서 행하는 [出貿易]으로, 오란다인이나 중국인이 長崎의 出島나 唐人屋에서 행했던 [入貿易]과는 반대의 형태였다. 交易場은 부산의 草梁項에 설치되었던 “草梁倭館”(또는 倭館)으로 이곳이 유일한 일조간의 교역·통교의 장이었다. 왜관의 넓이는 10만평. 長崎 唐人屋의 10배, 出島の 25배였으며, 여기에는 관수·재판·동향사승·대관 등의 역인 외에도 500여명 정도의 일본인 거류민이 살고 있어 외교·교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왜관이 徳川時代 한일관계의 주요거점이었고, 왜관을 통해 한일간의 모든 왕래가 이루어졌던 만큼 너무 소략한 기술이다. 최근의 연구성과가 양국의 개설서에 잘 반영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가 있겠다.

Ⅲ.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에서 한·일양국개설서의 서술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통해 개설서에 나타난 한일관계사 서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제별로 정리해보자.

첫째,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에 관해서, 한국개설서의 경우는 4권중 2권에만 서술되었는데, 원인과 과정을 주로 서술하였다. 침략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몽고의 일본에 대한 조공요청과 고려의 조정, 그리고 일본의 거절로 기술하고 있으며, 원정

55) 위의 책, 195쪽.

실패에 의한 고려의 손실을 강조하였다.

한편 일본개설서에서도 2권에 서술되었으나 1권은 소략한 반면, 1권은 아주 상세히 元寇의 침입과 그에 대한 응전상황을 서술했다. 그러나 고려나 일본의 피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상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에 관해서는 서술의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특별한 쟁점은 없다고 본다.

둘째, 왜구에 관해서는, 한국개설서의 경우는 모두 서술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왜구침략시점과 왜구의 규모, 창궐지역과 피해상황, 고려의 외교적 노력과 격퇴과정, 화포의 개발, 박위의 대마도정벌, 이성계의 무장세력으로 성장 등으로, 왜구의 침탈내용이나 피해, 그리고 왜구에 대한 응징을 주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왜구를 일본 하층 무사집단으로 서술한 것은 주목된다.

이에 비해 일본개설서에는 4권중 3권에서 왜구를 전기왜구와 후기왜구로 나누어, 그 구성과 활동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런데 《詳説日本史研究》에서는 전기왜구를 일본인을 중심으로한 해적집단으로 서술했고, 그 중요한 근거지로 對馬・壹岐・肥前の 松浦지방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概論日本歴史》에서는, 왜구를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연합한 세력으로 보고, 1350년 이후 조선반도에서 활발화한 왜구는 對馬, 壹岐나 北九州를 거점으로 한 일본인이나 조선인을 주력으로 했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Story 日本の歴史》에서도 왜구는 해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민족이 잠거하는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현재의 국적에서 보면 일본인이나 조선인 혹은 그 혼혈을 중심으로 한 잠거집단이라고 서술했다.

양국의 개설서에서 왜구가 고려의 각지역을 습격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고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무력응징의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왜구의 구성원에서는 상당히 상반된 서술을 하고 있다. 즉 한국개설서는 왜구는 당연히 일본인 또는 몰락한 일본인 하층무사로 서술했지만, 일본개설서는 왜구의 활동지역을 제민족의 잠거지역으로 보고, 그 구성도 일본인, 조선인, 또는 혼혈의 잠거집단으로 서술하고 있다.

셋째, 조선전기(室町時代) 통교부분에 관해서는 양국의 개설서에서 통교현황을 대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통교개시의 상황, 삼포개항, 대마도정벌, 각종의 통교규정, 대마중씨주도, 계해약조, 삼포왜란, 임신약조, 교역품소개 등 사실에 충실히 서술했다. 그러나 한국개설서에서 통교개시가 대마도주의 애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던가, 조선의 선진문화가 일본문화 발달에 기여했고, 조선사신이 일본에 가서 수상과 동격의 대우를 받았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일본개설서에는 통교가 조선이나 명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 막부가 이것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던가, 삼포의 난의 원인을 조선의

통제만으로 서술하였다.

한편 이 시기 조선과 유구에 관한 서술이 한국개설서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일본개설서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조선전기 통교관계의 중요한 주제인 위사에 관해서는 양국개설서에 전혀 소개 되어 있지 않다.

넷째, 임진왜란(秀吉의 조선침략)에 관해서도, 양국개설서의 서술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즉 전쟁발발의 원인과 과정, 전쟁의 경과(일본군의 진격과 한양, 평양함락), 명의 참전, 의병결기, 강화회담, 정유재란발발, 이순신의 응전, 豊臣秀吉의 죽음, 전쟁의 종결, 전쟁의 영향(조선의 피해) 등에 대해 사실적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한국개설서에서는 전쟁원인이 豊臣秀吉의 朝鮮入貢이나 征明假道の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서 시작된다는 점,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전국민이 단합하여 침략에 대항해 간다는 점, 전쟁의 피해로 인해 조선인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오랜 후일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일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조선측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고 기술했다.

이에 비해 일본개설서에서는 침략의 원인을 豊臣秀吉의 과대망상이나 일본내부의 이유들(영토의 획득, 무역의 재개, 명에 대한 국가주권의 확립)로만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는 侵略 대신에 出兵 또는 派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조선이나 일본이 이 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나 침략성에 대한 서술이 너무 개략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결론적으로 양국개설서가 모두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 인식이나 서술방식에는 아직도 많은 괴리감이 있다.

다섯째, 통신사에 관련된 서술인데, 조선이 막부의 간청을 받아들여 통신사를 파견했다고 하는 일방적인 표현이나, 통신사의 목적이 장군승습의 대외적 공인은 타당하지만 조선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다던가, 통신사를 통해 조선이 외교·문화적으로 우위를 지켰다는 서술은 일방적인 서술이다.

한편 일본개설서인 《教養の日本史》에서는 통교회복이 徳川家康과 對馬 宗氏の 노력에 의해서 부활된 것으로 서술했고, ‘막부는 조선을 朝貢國으로 간주했다’고 서술되었다. 반면, 《詳説日本史研究》에서는 《教養の日本史》와는 달리 ‘일행이 각지에서 국가의 빈객으로 정중히 취급받았다’고 서술하였다. 아주 대조적인 서술이다. 이러한 면에서 통신사에 대한 인식도 사뭇 차이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조선후기(徳川時代) 200여년간 조일통교의 창구였던 倭館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다. 양국개설서 모두가 최근의 연구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IV. 차이점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⁵⁶⁾

1. 왜구의 발생원인과 왜구집단의 구성

왜구 발생원인에 관해서, 일본학계에서는 13세기의 왜구가 일본인의 활약임을 인정하면서도, 14세기 중기 이후 왜구의 창궐과 소멸의 원인을 고려와 조선에서 찾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대부분 한국측의 사료만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본사료 《靑方文書》등을 통해서 볼 때, 13세기 왜구 출현은 日本 内海와 九州의 「海上 武士團」의 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350년 <庚寅年 倭寇>의 출현은 觀應擾亂으로 九州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면서 약소 무사들과 住人들이 在地를 이탈하여 바다 건너 왜구로 활동한 결과이다. 그후 1360년대의 소강상태를 깨고 70년대 갑작스런 왜구의 증가는 今川了俊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1371년 今川了俊이 九州探題가 된 다음 해부터 왜구의 출몰이 갑자기 늘어나고, 1375년 少貳冬資가 피살되고 난 다음 해부터 왜구의 출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은 了俊이 九州에서 探題 專制權力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在地를 이탈한 「反探題」 세력과 探題 權力的 통제 밖에 있던 해적 세력, 그리고 惡黨 세력 등의 활동 때문이었다. 이어 1380년대 중반에 점차로 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下松浦 지역의 小領主와 住人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夜討・海賊 등의 금지조항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 즉 왜구의 출현과 창궐, 그리고 소멸을 九州의 정치적 영향과 세력의 재편, 그리고 在地의 안정과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설명해야 한다.⁵⁷⁾

다음 왜구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왜구의 민족구성에 관해 보자.⁵⁸⁾

왜구가 일본인만의 집단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왜구 선박과 동원된 馬匹이 대규모적이라는 기록과 水尺・才人 등 고려천민이 왜구로 가장했다는 기록이다. 또한 《朝鮮王朝實錄》의 李順夢記事, 제주도 해민의 왜

56) 임진왜란과 통신사의 한국측의 연구성과는 정구복, 조광위원의 보고서를 참조 요망.

57) 왜구의 발생원인에 관해서는 김보한,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日本歴史研究》 13집 ; 2001, <一揆와 倭寇> 《日本歴史研究》 13집, 1999 등의 일련의 연구가 있다.

58) 왜구의 구성주체에 관해서는 남기학, <중세 고려・일본관계의 쟁점 : 몽골의 일본침략왜구>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와 이영, <고려말기 왜구구성원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5, 1996 등의 일련의 연구가 있다.

구관련설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과 이유들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高麗史》에 보이는 왜구선박이 300척이나 500척이라는 기술인데, 이는 당시 對馬·壹岐·西九州 및 瀨戶內海의 해상세력의 규모로 보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이며, 대량의 馬匹은 왜구들이 일본에서 수송하였거나 또는 고려의 말을 약탈한 것이었다.

그리고 고려 우왕 대의 禾尺, 才人들의 ‘假倭’ 행위는 어디까지나 왜구의 침공에 의해 촉발된 하나의 현상이었으며, 《高麗史》에 ‘假倭’로써 기록하고 있는 사료는 고려말 500여회전후의 왜구관련 기사중 단 3건뿐이다. 또한 왜구중 조선인을 포함시키는 유일한 문헌사료로 인용되어 온, 조선 세종대의 이순몽의 <왜구구성원>에 관한 발언도 그 의도가 왜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조세감축을 위한 내용이었고, 당시의 사료가 아니라 10년후의 구전이며, 또한 그의 인물평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한 두개의 사료만으로 화척이나 재인이 왜인과 연합하여 왜구가 되었다던가, 왜구중 조선인이 많았다는 기술은 사료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제주도 水賊의 예를 들어 濟州島人이 왜구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고 하는 주장 역시, ‘제주도의 정의현 동쪽, 대정현 서쪽, 죽도에는 옛부터 왜선이 은박했다’는 기록과 ‘15세기 후반 제주도해민이 倭語를 사용하고, 倭服을 입고 종종 해적 행위를 하였다’는 기사에 근거하는데, 이 기사도 이미 왜구의 전성기로부터 거의 1세기 뒤인 15세기 후반의 사료로 고려 말의 왜구 활동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둘 한 두개의 사료만으로 왜구의 민족구성을 일본인·고려·조선인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결국 왜구는 이른바 三島(對馬, 壹岐, 松浦)를 포함하여 구주로부터 瀨戶內海 紀伊半島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해적 및 악당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최근에 왜구의 구성을 ‘국적이나 민족을 넘어선 차원의 인간집단’으로 파악하는 시각이야말로 당시의 현실과 동떨어진 가공된 역사상이다.

2. 조선국호의 표기문제

1392년 이성계에 의해 새로 건국된 왕조의 국호는 조선이었다.⁵⁹⁾ 그러나 일부 개설서에서는 아직도 李氏朝鮮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계에서는 「李

59) 국호의 성격에 관해서는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研究》, 서울대출판부, 1989 참조.

氏朝鮮'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폄하하는 '李王朝'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조선이라는 국호의 인식문제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朝鮮이라는 국호가 1392년에 百官會議에서 선정한 「朝鮮」과 「和寧」의 두가지 명칭 중에서 明帝가 전자를 채택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호의 결정과정을 보면 비자주적이 주체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왜냐하면 국호의 선정 이면에는 특기할 만한 歷史意識과 文化自尊意識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호제정자인 정도전에게 조선이란 檀君朝鮮과 箕子朝鮮을 의미한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단군은 중국의 堯 임금과 동시대의 인물이므로 단군이 세운 조선의 역사는 중국 최초의 나라인 堯의 역사와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국시조인 단군은 天神의 후손으로 단군조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자국가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기자조선은 周文化의 계승자이므로 조선은 중국과 대등한 문화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따라서 국호선정과정에서 사대관계의 의례적인 행위이상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자국의 존재를 인식시키려는 목적에서 조선에게 事大의 禮를 갖추기를 요구했고, 조선은 자국의 안정과 상호공존의 우호관계를 위해 중국을 상국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이는 명이 朝鮮國王 太祖의 즉위를 승인하는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승인문서에는, “하늘이 東夷國家를 만들었는데, 우리 중국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禮部에서 문서로 회답하기를 왕의 敕命을 자유롭게 하니 하늘의 뜻에 따르고, 인심에 합하면 동이백성이 편안할 것이며, 변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신이 왕래하면 실로 그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⁶⁰⁾라고 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종래와 같이 사신이 왕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중국과 사대관계를 맺고, 1403년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는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즉 남북조를 통일한 足利義滿은 중국이나 조선으로부터 문화수용과 교역을 하기 위한 욕구와 동아시아세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통일정권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의 제후들에게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명 및 조선과 공식적인 통교관계의 수립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도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외교규범이었던 책봉체제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도 1403년 명으로부터 「日本國王之印」의 金印을 받아 명의 책봉국이 된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은 명의 책봉국으로서 國王對國王의 대등

60) 《太祖實錄》 권2, 태조 원년 12월 갑진.

한 입장에서 통교를 하게 된다. 물론 조선이나 일본이 모두 중국의 책봉을 받았지만, 이것이 곧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국의 자주성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조 이성계가 새로 건국한 나라의 국호는 「朝鮮」이므로 「朝鮮」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朝鮮」이라는 국호는 과거 일본측의 사료(《古事類苑》, 《善隣國寶記》 등 室町時代나 徳川時代 史料集)에도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이라는 국호가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조·일 통교의 성격

통교요구부분에 관한 기술도 ‘조선도 명과 마찬가지로 통교와 왜구의 금지를 일본에 요구해 왔다’고 하여 조선이 통교를 먼저 요청했고, 일본이 허락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사실과 정반대이다.⁶¹⁾

1392년 조선에서는 건국직후 막부장군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막부에서는 足利장군 명의가 아니라 승려인 絶海中津의 명의로 조선국왕에게 답서를 보내왔다. 그 서한의 중심내용은 막부장군이 조선측의 왜구금압과 피로인 송환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양국의 隣好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것, 그리고 막부장군이 조선과의 통교를 적극 원하고 있지만 장군이 직접 외국에 通問한 일이 없으므로 외교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승려를 통해서 답서를 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볼 때, 당시 室町幕府도 조선과의 통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부장군이 직접 외교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역시 막부장군에 의한 일본 국내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외교능력이 없었다는 데에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러던중九州와 大内氏의 지배가 가능해지자, 足利將軍은 명과 조선과의 통교관계 수립을 위해 1403년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곧 이어 1404년 7월에는 조선에 장군명의로 ‘日本國王使’를 파견함으로써 조선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마도주를 중간매체로 이용하여 조선과의 통교관계를

61) 조선초기 통교의 성격에 관해서는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샘, 1994.

수립하게 된다. 室町幕府시대의 조일관계를 볼 때, 조선사절(回禮使·報聘使·通信使) 파견이 17회인데 반하여, 막부로부터의 日本國王使 파견은 71회에 달하고 있다. 당시 사절파견의 목적만 보더라도 조선사절은 막부장군의 왜구금지와 피로인 송환에 대한 回禮와 答禮가 주목적이었음에 비해, 日本國王使는 대부분이 통교요청과 大藏經 請求였다. 또한 日本國王使의 파견이 조선에 비해 많았던 이유도 조선측으로부터 답례가 후하자, 위장된 사신인 僞使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전기(室町時代) 조·일 간의 통교현황>⁶²⁾

	1392-1419	1420-1443	1444-1471	1472-1510	1511-1592	계
室町幕府	16	7	12	11	25	71
本州・四國	42	43	91	144	28	348
九州	94	178	184	370	19	845
備前・一岐	112	91	355	605	3	1,166
對馬島	155	492	607	1,056	75	2,385
其他	13	7	5	2	2	29
計	432	816	1254	2,188	152	4,842

즉 막부장군외에도 각지역의 지방세력가들이 사절을 보내 통교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室町시대의 조·일간의 통교는 전적으로 일본쪽에서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들의 무질서한 왕래를 통제하기 위해 포소를 三浦로 제한 했으며, 또 이들을 상경시켜 조선국왕을 알현케 하는 上京制度를 두었고, 대마도주에게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文引發行權)를 주어 일본으로부터의 모든 통교자를 조선의 통제규정(《海東諸國紀》)을 설정하여 무역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443년 대마도체찰사 李藝가 對馬島主 宗貞盛과 맺은 癸亥約條는 조일관계의 성격을 잘 알려주고 있다. 약조의 내용 중에는 ‘대마도주에게는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歲遣船을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 정해진 숫자외에 特送船을 보낼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약조의 내용은 두 개 항목만 알려져 있지만, 도주에 대한 세견선, 특송선, 세사미두를 정한 것이다. 세견선에는 일본사절과 함께 무역품이 실려있었다. 따라서 세견선수는 조·일 무역량과 양국의 무역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이 수를 제한함으로써 무역량을 통제했다. 이렇게 파견된 세견선이 15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연간 400척에 이르

62) 韓文鐘, 《朝鮮前期 對日外交政策研究》, 全北大 博士學位論文, 1996.

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선에서 통교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幕府가 이에 응했다는 기술은 역사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명에 파견한 遣唐使에 의해 日·明무역이 전개된다는 점에 있어 중국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4. 대마도정벌 및 삼포왜란

대마도정벌이나 삼포왜란에 대하여 “1419년(응영26) 조선은 200척의 병선과 17,000명의 군병을 가지고 대마를 공격했다”, “조선은 왜구의 근거지를 치려고 대마를 습격한 사건”이라던가, “그 운용을 둘러싸고 폭동을 일으켜 조선역인에게 진압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우선 대마도정벌에 관해 보자. 1418년 대마도주 宗貞茂의 죽음은 대마도의 내분을 야기시켜 다시금 왜구의 창궐을 몰고 왔다. 그리하여 기근에 의해 생활이 궁핍해진 대마도인은 다시 왜구가 되어 1419년 5월에 왜선 50여 척으로 충청도 庇仁縣을 침입하였고, 병선을 불태우고 노략질을 했으며, 이어 황해도 연평도에 재차 침입하여 요동반도로 향하였다. 그러자 태종은 왜구의 주력이 대마도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정벌을 결정하고, 도체찰사 李從茂로 하여금 전함 227척에 兵 17,285명과 65일분의 식량을 적재하고 대마도를 공격하도록 했다. 이종무의 정벌군은 1419년 6월 20일 아소만을 공격한 후, 왜구의 소굴이라고 생각되는 각지를 토벌했다.

이때 왜구의 주력부대는 조선을 거쳐 요동지방을 노략질하고 있었으므로 대마도에 는 없었고, 또 태풍이 예상되어 대마도주를 책망한 후 7월 3일 거제도도로 귀환했다. 따라서 대마도정벌은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수는 없었지만, 왜구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과시함으로써 소정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1419년 대마도정벌 직후 교역이 단절되자 생존에 위협을 느낀 대마도는 다시 교역 재개를 요청했고,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일통교체제의 일원화를 꾀했다. 즉 교역이 단절되자 대마도주는 대마도를 조선에 귀속시키되, 인장을 만들어 주면 모든 명에 따르겠다고 요청을 해왔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도항자의 제한을 유도하는 한편 도주는 도내의 지배권을 강화했던 것이다.⁶³⁾ 따라서 1419년의 대마도정벌은 단순한 습격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⁶⁴⁾ 다음 1510년 三浦倭亂의 성격은, 삼포가 교역을 위해 일본인의 거주가 허용된 개항장으로

점차 밀무역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이 통제를 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거류민들이 對馬島主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삼포왜란의 경위를 살펴보면, 조선은 건국후 국방문제를 감안하여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왜구 및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1407년 富山浦(釜山浦·부산)와 乃而浦(薺浦·진해)를 개항하였고, 1426년에는 鹽浦(울산)를 개항하여 입국하는 일본인들의 교역 및 접대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 삼포에 한하여 일본인의 내왕을 허락하였으며, 恒居倭人이라하여 60호(제포 30호, 부산포 20호, 염포 10호)의 장기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왜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삼포에 들어와 거주하였으며, 해마다 수가 증가하여 1494년에는 525호에 3,105인이나 되었다. 따라서 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치적·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1506년 중종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왜인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였고, 이에 반발한 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이때부터 조선인과의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다.

<삼포 항거왜인수>

	세종초		1466년		1475년		1476년		1494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제포	30	·	300	1,200여	308	1,722	308	1,731	347	2,500
부산포	20	·	110	330여	67	323	88	350	127	453
염포	10	·	36	120여	36	131	34	128	51	152
계	60	·	446	1,650여	441	2,176	430	2,209	525	3,105

1510년 4월, 제포의 恒居倭酋인 大趙馬道와 奴古守長 등이 대마도주의 아들 宗盛弘를 대장으로 삼아 4,000 ~ 5,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부산포를 공격하여 부산첨사 李友曾을 살해하고, 제포를 공격하여 첨사 金世鈞을 납치한 뒤, 웅천과 동래를 포위하고 공격함으로써 삼포왜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전절도사 黃衡과 전방어사 柳聯年을 각각 경상좌·우도 방어사로 삼아 삼포로 보내어 이들을 진압하게 되었다. 그 결과 宗盛弘은 피살되고 삼포 거류의 왜인들은 모두 대마도로 도주하고 남은 평정되었다. 이 난으로 조선측은 군민 272명이 죽고, 민가 796호가 불탔으며, 왜선 5척이 격침되고 295명이 참살되었다. 이 삼포왜란을 계기로 삼포는 폐쇄되어 통교가 끊겼으며, 1512년 壬申約條에 의해 재개되었다.

63) 孫承喆, 《近世의朝鮮と日本》, 明石書店, 1999 참조.

64)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上, <朝鮮世宗己亥の對馬征伐>(吉川弘文館, 1967) 참조.

이상과 같이 삼포왜란의 전말을 검토하여 볼 때, 삼포왜란의 원인은 삼포의 항거왜인이 60호의 약정을 깨고, 무분별하게 거주가 폭주하면서 비롯된 것이며, 그 시작도 항거왜인이 왜관을 난출하여 조선측을 공격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5. 위사문제

한편 이 시기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양국개설서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주제가 위사문제이다. 다행히 이번에 제2분과의 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공동연구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제2분과의 큰 성과중의 하나이다.⁶⁵⁾ 물론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정의나 시기구분, 위사의 발생원인이나 위사의 유형, 위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 및 대응 등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위사문제의 규명이야말로 조선전기 한일관계사의 여러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 하나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현재, 양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설서의 중·근세 한일관계사 부분의 서술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 양국개설서는 거의 동일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서술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왜구의 구성, 조일통교의 성격, 豊臣秀吉의 조선침략, 통신사의 인식 등에서 아주 다르게 서술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양국의 연구성고가 충분히 반영되어 바람직한 한일관계사를 엮어갔으면 좋겠다.

끝으로 바람직한 한·일 관계사서술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65) 한문중,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통교위반자처리>(2003. 12, 제9차 합동분과회의 발표문)과 伊藤幸司, <中世 日・朝關係に見える偽使の時代>(2004. 3, 제10차 합동분과회의 발표문) 참조.

첫째, 우선 양국관계의 基本的인 歷史事實에 充實해야 한다. 즉 고려전기의 진봉선 무역을 통한 관계나 왜구 구성원이나 성격에 관한 기술, 통교계기와 과정, 三浦를 통한 양국의 평화적인 통교관계, 임진왜란에 관한 원인이나 성격에 관한 사실적인 서술, 양국의 피해상황, 국교재개를 위한 양국의 노력, 통신사의 성격과 역할, 부산왜관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평화적인 통교관계 등이 보다 사실에 충실하게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일관계사가 事件中心이 아닌 通時的인 敍述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 근대의 국제관계사를 서술할 때, 늘 戰爭史 또는 사건중심의 역사를 서술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만을 보더라도 갈등의 시기보다는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시기가 더 길다. 이러한 점에서 서술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중·근세의 경우, 進奉船의 시대에서 倭寇의 시대로, 또 조선전기의 三浦를 통한 通交時期에서 임진왜란으로 그리고 다시 通信使와 倭館의 시기에서 개항기 사이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友好交隣을 강조했던 시기가 더 길었던 것이다.

셋째,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一國史의이고 一方的인 서술을 벗어나 客觀化 시켜가는 서술이 필요하다. 즉 한일관계사가 기본적으로 양국의 관계인 만큼 어느 한편의 상황만을 서술해서는 안되고, 쌍방의 입장을 편견없이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 관해서술할 경우, 일본의 침략성을 분명히 서술하고, 그로 인한 조선인의 피해를 통해 양국간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불행한 전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이 시기의 양국관계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專門家가 執筆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설서 가운데는 오류가 적지 않고, 또 최근의 연구성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성과를 답습한 기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양국개설서의 집필자 구성이나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설서가 양국인에게 자국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학술서인 만큼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째,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을 지향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肯定的인 側面의 韓日關係史를 강조하여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선전기 三浦와 조선후기 통신사와 부산왜관을 통한 통교관계속에서 양국간에는 우호교린을 상징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여 對立과 葛藤보다는 友好와 共存의 歷史가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⁶⁶⁾.

66)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7차에 걸쳐 진행되 온,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한일 공동학술세미나는 매우 전망이 밝다. 본인도 2003년 12월 29일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 제7차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한일 공동학술세미나에 참가하여, <중·근세 한일관계사에 대한 양국

토론 녹취문

- 주 제 : 중·근세 한일관계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 발표자 : 손승철 위원
- 일 시 : 2004. 3. 14(14:10-16:30)
- 장 소 :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 손승철, 조광, 정구복, 한문중, 홍성덕, 박재광, 장순순
 - 일본측 : 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豊, 伊藤幸司, 米谷均

교과서의 서술경향>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문

조광 : 예, 손승철 선생님께서는 꼭 40분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일본측 연구자들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질문을 던져 주실런지요?

六反田 : 그러면 저부터, 좋습니까. 저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통역하시는 분도 힘드실 테니까 가급적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어, 그, 그게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손 선생님께 여쭙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다루신 일본측의 그, 대상이 된 개설서라는 것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저, 이것은 단순히, 아 죄송합니다. 일본측의 개설서로서 네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의 《Story 日本の歴史》라는 책이, 이것은 출판사가 안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시대 설정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뭐, 한국의 중근세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개항기 전까지,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平安시대 중기 이후부터 鎌倉, 아, 실례, 徳川막부 말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어, 한국의 경우, 그,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가 중세, 근세라고 일반적으로, 저어, 그렇게 대다수의 견해라고 할까요, 뭐랄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해되고 있다는 것은 뭐 알고 있습니다. 저어, 문제는 일본 쪽인데요, 저어, 여기서는 그, 일본의 중세, 근세가平安시대 중기부터 徳川막부 말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런 견해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해에서는 중세란 鎌倉시대부터 시작된다고, 즉 12세기군요, 어, 1192년이니까 12세기 말기네요, 그 때쯤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어, 여기서는 왜 平安시대 중기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 이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여기서 하시는 분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앗, 네, 이상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저어, 다음 수준에서의 문제로서, 저어, 여기서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그, 개설서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습니다. 저어, 하나는, 한국측의 개설서로서 여기서 4 종류의 개설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韓國史新論》그리고 《韓國通史》, 이 두 책에 대해서 여쭙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물론 《韓國通史》라는 책은 한우근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 초판은 1960년대였나요, 그리고 《韓國史新論》은 이기백 선생님이 쓰셨고, 이것은 70년대 초쯤, 저어,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나온 지 상당한 연한이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개정판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원래 초판과 개정판과 상당히 기술도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연구성과를 채용해서 기술이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어, 이 부분이 어떤, 그, 초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달라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 일본측의 개설서로서 4종류를 선택하셨는데요. 저어, 아, 일본측의 개설서로서 4종류를 선택하셨는데, 저, 이것을 보면 말이죠. 저어, 각각의 서적, 그, 저어, 뭐랄까요. 아, 예를 들어서 《概論日本歴史》 혹은 그 《教養の日本史》라는 책은 대개, 그, 일반인용의 개설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그, 성격이 다른 것, 저는 이 《Story 日本の歴史》라는 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어, 좀 성격이 다른 책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詳説日本史研究》라는 책, 이것은 다른 책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아, 다시 말해서 《詳説日本史研究》라는 책은 어떤 성격의 책인지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쭙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그, 서적, 대상으로 하신 개설서에 대한 질문이구요, 마지막에 내용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저어, 이 논문이라고 할까요, 연구의 목적으로 머리말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어, 일본어판을 읽어보면 저, 저어, 위에서 3번째 줄인데요, 저어, 「이와 같은 작업은 중근세 한일관계사 연구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현재 양국간에서 학술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쟁점이 무엇이며, 그 쟁점 중에서 어떤 내용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에 의하여 상호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부분을 보면, 마지막에 몇 가지 제안으로서 4가지, 아, 5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4번째 제안을 보면, 저, 「이 시기 양국관계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집필해야 한다. 개설서 중에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고, 또한 최근 연구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성과를 답습한 기술이 적지 않다.」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저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처음에 「양국간에서 학술상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쟁점」이라는 것이 지금은 충분히 개설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저어, 그러니까 우리를 전문의 일조관계사, 한일관계사의 최신 성과는 모처럼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저어, 그 학술해석상의 일반적으로, 혹은 통설적인 이해의 차이점으로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술해석상, 혹은 전문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연구에 있어서 그 해석상의 차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그, 쟁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어, 실제로 보면 그, 사실은 최신의 성과가 반영된 부분도 있네요. 저, 예를 들어 왜구에 관한 부분에서, 저어, 어디를 봐도 되는데, 글썽, 아, 저, 정리한 부분, 아, 왜구에 대해서입니다. 저어, 그, 저, 「3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저어, 여기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어, 일본측의 책, 저, 일부의 책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어, 예를 들어 「《概論日本史》에서는 왜구에 대해서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연합한 세력으로 보고, 1350년 이후에 한반도에서 활발해진 왜구는 대마도나 일기도, 북구주를 거점으로 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혹은 그 《Story 日本の歴史》에서도 저어, 「일본인과 조선인, 혹은 그 혼혈을 중심으로 한 잡거집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최근 일본에 있어서의 왜구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한국측의 개설서에서 그, 왜구의 실태를 저, 「일본의 몰락한 하층무사」 라고 써 있는 것도, 이것은 어떤 한국인 연구자의 성과에 의거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최신의 성과도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어, 바로 이 부분이 그, 학술해석상의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어, 이 논문을 읽은 한,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저어, 그, 종래의 통설적인 이해를 끌어가는 부분과, 그리고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한 부분과 구별을 하신다든가, 알 수 있게끔 서술하시고, 그리고 문제점은 이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셨으면 읽는 입장으로서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여러 가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양국 개설서에 있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별로 질문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Story 日本の歴史》라고 하는 책에 관련된건데 사실은 제가 네 가지 개설서를 선택하면

서 고민했던 것이 과연 이 네 가지 책으로 일본 개설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염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점에 갔을 때 이 책들이 제일 눈에 많이 띄었고, 또 이 책을 출판한 회사들이 일본에서는 비교적 알려진 출판사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 분의 소개를 받았 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권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위원 선생님 들이나, 또 연구 협력자 선생님들께서 이 책보다는 이런 책이 더 개설서로써는 좋은 책이다 그걸 소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논문을 완성할 때 그 책의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좀 더 충실한 논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면은 한국의 개설서도 똑같이 때문에 한국의 선생님들께도 똑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tory 일본역사》 첫 번째 질문입니다. 《Story 일본 역사》는 편자가 일본사 교육연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회 회장은 菱刈隆永, 편집 위원은 이제 다섯, 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은 2001년에 山川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제가 원본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가져왔거든요. 복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대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대구분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선생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헤이안 시대 중기로 잡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려시대를 생각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본 학계에서 가마쿠라 시대부터 다시 말해서 12세기 중간이라고 하면, 저도 그 점을 앞으로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 :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그 시대구분을 일본에서 중세라고 해 가지고 가마쿠라에서부터 잡는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2분과의 정확한 시대구분이 아닙니다. 2분과는 고대사 이후 즉 세기로 하면 10세기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六反田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중근세란 한국의 경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본의 경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저, 이것은 일본에서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에서는 그,鎌倉시대 이후는 중세니까, 저어, 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손승철 : 예, 알았습니다. 바로 그 애긴데, 제가 제목을 중근세로 붙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시기를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지, 시대규정을 여기서 그

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대상 개설서에, 한국 개설서의 예를 들면, 《韓國史新 論》과 《韓國通史》를 말씀하시면서, 다 아시다시피 《韓國史新論》은 이기백 선생께서 벌써 초판이 이것이 1960년대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韓國通史 》도 한우근 선생께서 벌써 한 2, 30년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동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물론, 개정판 수정판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개정됐고, 어떤 부분이 수정됐고, 그런 것 들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초판하고 비교해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주제만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명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 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판이 나왔고, 현 재에도 제1 많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택했습니다. 일본 개설서를 말 씀하시면서 《상설일본사》 책이 《상설 일본사연구》, 이 책이 됩니다만, 이것 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인지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상당히 상세 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또 뒤에 집필자 명단을 보니까 일본의 여러 대학 교수님 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서점에 가든지 이게 눈에 띄더라구요, 어떤 분들도 이 책을 소개해 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 참고로 했습니다. 혹 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六反田 : 이 책은 아마 어느 서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고등학생들의 대학 수험을 위한 수험참고서입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 기서 말하는 일반인, 대학생들이 읽는 개설서라고 할 경우에는 좀 성격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한국측의 수험 참고서에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 지, 이런 관점에서 비교를 할 거라면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저어, 좀 이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손승철 : 네. 그 점을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됩니 다만,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글의 목적을 말씀 드렸고, 결론 부분에서는 앞 으로 바람직한 개설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선 서론 부분에 제가 현재 양국간 중근세 한일

관계사 기술에 있어서 현재 양국간에서 학술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쟁점이 무엇이며, 그 쟁점 중에 어떠한 내용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제가, 그동안 우리가 합동 분과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일역사 공동 연구위원회의 가장 기본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우선 우리가 문제의식을 정확히 상호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에서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먼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처음 1회 회의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동 연구위원회 목적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상호간에 뭔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가고, 또 쟁점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한일관계사의 중요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안되고 있는 부분,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한일 양국간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테마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가자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개설사 서술에, 집필에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데,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서는 최근의 연구까지 다 수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일본쪽의 왜구에 대한 기술은 다 아시다시피 최근의 아주 최근의 연구 경향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이 그렇게 최근의 연구 성과까지 집필하고 있지 않고, 또 양국에서 개설서 집필하는 집필자들의 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 모든 주제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요구된다, 일반론을 여기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서부터 사실은 논쟁이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본에서는 왜구를 이렇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왜 다르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말해서 오늘이 마지막 발표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발표회인데, 이번 회기에 그것까지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국의 입장이, 표현이, 기술이 어떻게 다르고 있느냐. 그 사실 확인만 하더라도 우리 연구위원회의 하나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六反田 : 예, 한마디... 조금 보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비교를 한다는 것,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단 그럴 경우에 통설적, 지금까지의 양국의 통설적인 내용을 답습한 부분과,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달라져 왔느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비교를 해주시는 편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연구성과가 반영되고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옛날과 같다, 한국에서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비교를 해주시는 편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광 : 예, 알았습니다. 손 선생님 더 이상 대답하실 게 없겠죠? 요시다 선생님 질문을 해 주시죠.

吉田 : 저는 세 가지 정도 여쭙보겠습니다. 간단한 부분부터 기본적인 원칙까지입니다. 우선 간단한 점은, 선생님은 이들 책을 선정하신 이유에서, 이것은 일본어판 27페이지 주석 1번, 한국어판에서는 1페이지 아래쪽, 주 1번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들 서적을 비교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정말 이해 못합니다. 당연히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학술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실은 쓰고 계십니다. 「서점에서 입수할 수 있었다.」 어느 서점에서 입수했는지. 그 다음에 「또한 양국의 학자가 선정한 것.」 어떤 학자, 특히 그, 일본의 개설서를 선정하는 데 협력한 학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면 4권 선택하신 중에서 하나는, 아까 록단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분명히 개설서가 아닙니다. 수험참고서입니다. 그리고 《Story 日本の歴史》,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일본의 참석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집필한 사람은 모두, 여기서 집필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학술서라고 할 수 없는 게, 참고문헌에는 新書版이 조금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즉 이른바 교육자가 쓴 책이며, 읽는 대상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골랐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생님께 추천한 일본인 학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어판 23페이지, 일본어판 26페이지 맨 마지막의 결론에서, 개론이라는 것에 대해 학술서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집필해야 한다고 쓰셨습니다. 원래 개론서라는 것이 학술서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럴 경우 개론서란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학술서를 쓰려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연구회, 특

히 우리들 제2분과의 기본적인 방침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이 시기, 중근세에 관한 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여기서는 중심적인 테마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구자가 최신연구를 한 결과를 양자 사이에서 토론하고, 그것을 사회에 대해 발신해 나가자고, 그,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어, 단순히 일반적인, 아 네, 통역. 저어, 따라서 그런 전제 아래서 연구 협력자라고 일본어로 하는데요, 저어,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이토 선생님. 그리고 요네타니 선생님, 오늘은 결석했습니다만 하시모토선생님. 그리고 한국측의 세 분, 한문종 선생님 등 모두 전문적인 연구자가 자기 전문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발표를 보면 4권 중 2권은 전문적인 책이 아니네요, 우선. 전문적인 학술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는 그, 수험 참고서이며, 하나는, 이것은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것도 참고서지 학술서도 아니고 최신의 연구를 여기서 쓴다는 것도 이상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상으로서 여기서 나온다는 방향성이라는 게, 우리들의 이 분과회의 공통적인 인식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손승철 :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 좀 화기애애하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 우선 네 권을 한국쪽은 네 권을 선정을 했고, 일본쪽에 네 권을 선정을 했는데, 두 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吉田 : 저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안했습니다. 그것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손승철 : 그래요? 제가 아까 선정한 책들에 대해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록단다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책들이 있으면, 이 기회에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고 굳이 쓴 이유는 혹시 제가 어떤, 그 동안 우리가 대립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무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우려심 때문에 주를 달은 거지, 사실은 주를 달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이제, 개설서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쓰느냐, 개설서는 학술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개설서야말로 학술적인 학문 연구의 업적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해서 그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설서가 학술서가 아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

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설 일본사》에 한국 같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입시용으로 사용하는 책에는 수험용, 뭐 이런 글자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설 일본사》 책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동경에 있는 삼성당 서점이라든지, 그런데를 가 보면 다른 일반 학술서적하고 같이 똑같은 곳에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다른 일반 개설서하고 똑같이.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책을 잘못 선택을 했으면, 그건 책을 바꾸면 되는 거고, 그걸 참고하면 되는거지, 그걸 가지고 막 야단치듯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가지요.

조광 : 지금 토론이 한참 무르익어갑니다. 토론이 무르익을 때는 잠시 숨을 돌리는 것도 필요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공동연구위원회의 합동회의는 서로의 견해를 조정하고 반영을 해서, 서로 좀더 나은 글을 쓰도록 같이 협조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이 점을 전제해 가지고 토론이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吉田 :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 대답을 안하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저어, 물론 선택할 때,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우는 저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단 그럴 경우에 저어, 잘못을 지적해 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승철 선생님도 신중히 양국 학자에게 물어서 선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이 선정을 했는지,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 고등학생의...

손승철 : 제가 이제 표현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네 권을 다 일본학자로부터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설서가 뭐냐고 물으니까 어떤 분들은 한 권 소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두 권 소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설서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좀더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선생님 혹시 여력이 되시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책을 보시오 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이 글을 완성하는데 최대한도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 : 그러면 다른 선생님의 질문을 더 듣고 미진한 부분은, 더 계속해서 얘기해 주

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로 선생님.

田代 : 연구사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어디까지가 밝혀졌고 어디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작업을 작년에 했을 때, 저, 우리들은 개설서, 그리고 일반 계몽서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이들은 학술적인 서적이 아니다, 즉 전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거든요. 왜냐면 결국 전문가가 집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라든가, 그리고 일반서를 보았을 때,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손승철 선생님이 여기서 쓰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신 연구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집필자에게 가장 쓰기 쉬운 부분만을 채용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왜관이 이렇게 컸다는 소개만은 하지만, 그러나 통신사의 정체라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쓰는 개설서 및 일반서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에서는 일반국민들의 차이점,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어디까지 뭐가 밝혀졌는지를 조사하자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찾고, 그리고 연구를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로 삼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개설서를 뭐, 서점에 진열되고 있다, 즉 서점 측에 그 평가를 맡겨버리면, 그 서점의 그곳에 진열하고 있는 것을 선택해 버렸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학술서, 전문서를 가지고 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대비해 보지 않으면, 어디까지 인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는, 아주 연구회의 의미가 아주 달라지거든요.

손승철 : 저는 이런 얘기가 거듭 될 때마다 항상 우리 한일역사공동회의를 왜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굉장히 회의가 옵니다. 저희가 한일역사공동위원회에서 1분과에서 3개 주제, 2분과에서 3개 주제, 3분과는 13개 주제예요. 13개 주제인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연구위원들 세 분씩, 그 다음에 공동연구 연구협력자분들, 어떻게 보면은 중근세 한일관계사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양국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국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10차례의 발표와 토론을 했지만,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바람직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

이 됩니다. 제가 개설서를 사실 선정한 이유는 개설서를 잘못 선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선생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좀더 더 정확하게 개설서를 선정해야 되는데, 개설서가 학술서냐 아니냐 저는 뭐 그런 논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연구위원회가 다 아시지만, 역사교과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때문에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차례의 공동 연구발표회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이라도, 도대체 중세 한일관계사의 양국의 쟁점이 뭐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성과가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더 여기서부터 논쟁이 되면 엄청나게 논쟁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의식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공유해 가면서 앞으로 연구를, 공동 연구를 다른 팀들이 또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吉田 : 저어, 실은 저도 한국과 일본의 여러 학술회의,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아주 솔직하게 비판의 의견이 나오고, 동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것은 종래의 비교적, 뭐라고 할까요, 우호적인 회의와는 다른 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연구 학문, 혹은 역사인식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것으로는 아마 제1회의 회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광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 「공통인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이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공통인식이다.」

조광 :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 차례에 걸쳐 논의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저희의 공식적인 만남으로는 마지막 모임입니다. 마지막 모임이다 보니까 손승철 선생님이 발표하신 이것 외에도 혹시 또 다른 이 모임과 관련되어서 앞으로의 추후 1년간 논의할 거가 아니라, 마무리를 지으면서 감상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토 선생님이나, 요네타니 선생님도 발언을 안하셨는데, 발언을 한마디씩 해 주셔도 좋겠구요. 미안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伊藤 :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몽고습래의 기술에서, 한국측의 개설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요즘 거론될 때가 많은 삼별초의 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것은 한국사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좀 공부부족이라서 잘 몰라서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측의 원고에서는 8페이지입니다. 「유구·남만과의 교섭」이라는 부분에서, 저, 유구에 머무르면서 남만무역에 종사한 조선인이 있었다고 쓰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손 선생님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코멘트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이와 같은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증이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조광 :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손 선생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감상이나 이걸 기대를 했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손승철 : 삼별초에 관해서는 중요한 사건이니만큼 개설서에는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과 관련해서 기술되어있지 않고, 주로 고려의 몽골에 대한 항쟁 부분에서 삼별초가 끝까지 이러 이렇게 항쟁을 했다 라는 것 까지만 기술이 되었지, 일본하고 관련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조선인이 유구에 표착해 가지고 유구에 머물면서 남방무역에 종사했다 저도 이걸 여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 한영우 선생님이 한림대학 초빙교수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내려가서 전화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조광 : 예, 정구복 선생님 발언해 주시지요.

정구복 : 지금 우리가 한일역사 연구 공동위원회 2분과에서 발표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함으로써 역사 이해에 대한 접근을 하자 하는 것이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각 역사는 일본사뿐만 아니라 한국사도 자기중심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강한 자국중심주의 역사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사건에 대해서는 실은 자기나라 입장에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 사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한일관계사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한일 관계사가 우호적인, 서로 다투는 역사가 아니라, 우호적인 역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손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해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국의 개설서를 쓴 사람들의 역사관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서문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밝혀줬으면 이러한 차이점이라는 데 차이점의 이해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하나를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이 한일 양국에서 모두 조선과 일본간의 전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실은 직접적으로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지만, 거기에는 명나라까지 참여한 국제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양국의 개설서에서 잘못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광 : 이 모임을 거의 마무리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지적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이 모임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가를 간단 간단하게, 예.

吉田 : 죄송하지만 아직 발언을 안했으니까. 아 답답한 분이 계십니다.

조광 : 자, 답답한 마음은 풀어드려야 합니다. 한 마디만.

米谷 : 알겠습니다. 뭐 개설서라는 것이 계몽서의 기술과 차이가, 이렇게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측의 계몽서 말입니다, 숨은 願望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조광 : 그러면 한국측 공동연구자들 중에서 혹시 저희 학술회의를 진행하는 데에서 느낀 바가 있으면, 1분씩 여유를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분은 1분 내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 선생님?

박재광 : 저는 사실은 이번 경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 나름대로의 연구, 그러니까 관심의 주 대상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또 서로간의 우리쪽에는 우리쪽 나름대로의 우리쪽 자료만 활용하였고, 일본측은 일본측 나름대로의 그쪽 자료만 활용하다 보니까 상

호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상호 이해의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보다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실에 대해서 보다 객관화 된 인식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 : 그러면 이제 좀 이번 회의를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열 차례 걸쳐서 서로 만나서 학술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이 만남의 계기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저희들은 두 가지의 책임을 확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라고 하는 위원회 측의 주문에 저희는 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각자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 내지 책임은 저희들이 한일 양국의 역사를 연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우선,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먼저 밝히고, 그 역사의 진실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양국의 우호적 역사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열 차례의 만남, 모임을 갖는 동안, 과연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얼마나 잘 수행이 되었는지는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겐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해를 기초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한일 양국의 중세사 연구가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고, 중세사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이해에 있어서도 더욱더 건전한 이해가 신장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여러 연구 위원님과 연구 협력자 내지 공동 연구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이번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만, 앞으로 또 더욱더 중세사에 대한 문제도 공동으로 연구할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 면 더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끝).